

“생산·포용·신뢰 3대 금융 추진… 경제 대도약의 길 열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6개월간 286만명 신용사면 기회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하고
벤처·중소 성장자금 조달 지원”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추진 목표를 재확인했다. AI·반도체 등 핵심사업을 포함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고, 금융소외자와 중·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라며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고, 새도약기금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해 113만명의 장기연체자의 경제 복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생산·포용·신뢰금융 추진

성과 보고 이후에는 내년도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위의 내년도 3대 추진 목표

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회복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금융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 본격화, 생산적 금융 협의체 출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포용적 금융’에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상품 공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 관행 근절 등이 포함됐다. ‘신뢰받는 금융’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피해발생을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 “코스닥시장 활성화”

이 위원장은 코스피시장의 성장세를 코스닥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내·외 투자자

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위원장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위의 코스닥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부실 종목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고, 벤처쪽에서는 혁신을, 투자자들은 신뢰를 우선 고려하길 원한다”라면서 “두가지 목표를 다 살피는 중이지만, 특히 부실이 발생했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손보겠다”라고 답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금융환경이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는 송달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인지료도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만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

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정책 목표는 IMF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여러 특혜를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소멸시효를 손쉽게 연장하는 등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생산적금융 가속화 유도

부동산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금융환경을 재편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환경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위주로 집중됐다.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본이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집중됐다. 주담대가 부실 우려가 낮고,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인을 위해 주담대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주식 등으로 가는 가중치는 낮추고자 한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KB금융, 우수기업 육성·안전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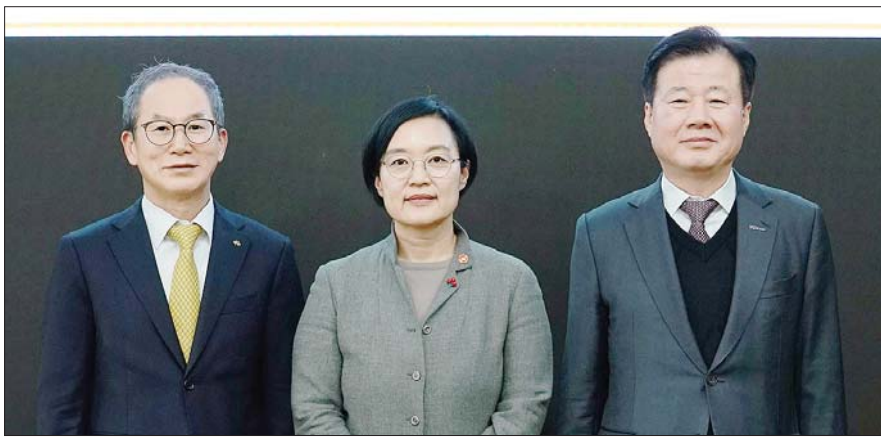
중진공과 중소기업 안전 지원 MOU “중소기업의 안전 환경에 앞장설 것”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KB금융은 산업안전·제품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KB금융이 앞장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조치가 시급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왼쪽부터)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한성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의 물꼬를 터준 데 이어 KB금융과 중진공은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KB금융, 중진공은 우수 산업안전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B금융은 내년 1분기부터 세부 사업구조 설계, 수행기업 발굴·선정, 대상

중소기업 모집·매칭 체계를 마련해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수행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이 도입된다. KB금융은 각 수행기업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에 따라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설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GS건설, 올해 도시정비 수주 6.3조 돌파

총 10개 단지 1만5980세대 규모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GS건설은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총 6조3461억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7조1480억원) 이후 최대치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우량 입지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올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은 총 10개 단지(1만5980세대)로 재개발 8개 단지, 재건축 2개 단지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개 단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창원 등 주요 도시에서도 수주를 이어갔다.

주요 수주 단지로는 지난 7월 시공사로 선정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1조6427억원)을 비롯해 봉천14구역 재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투시도. /GS건설

개발사업(6275억원), 이번엔 시공사로 선정된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9278억원) 등이 있다.

GS건설이 지난 20일 시공사로 선정된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 동, 2,086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278억원이며,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대출의 주요 불

편 요인이었던 자격증 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스캐닝 방식의 대체 심사를 적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신청 당일 대출심사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신한 SOL뱅크 앱 내 상품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번주 전국 3개 단지 총 140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총 3곳서 모델하우스 개관

12월 넷째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4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은 1143가구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이

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메이지’, 부산 남구 대연동 ‘한화포레나부산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금성백조주택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일원에서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메이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천시청을 중심으로 이천아트홀, 보건소, 경찰서, 세무서 등 주요 행정시설이 밀집한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중구 운남동 ‘신일비아프크레스트(1,2단지)’,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디에트르라메르 I’, 울산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산업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